

둘이 아닌 하나의 자리 (상)

조성란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는 했지만, 1989년 전까지 불교는 내게 그저 부처님오신날이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찾아가는 마음의 안식처일 뿐이었다.

그런데 89년 봄, 불교와 새롭게 인연을 맺게 되는 행운이 찾아왔다. 그해 봄에는 내 마음 속에 답답함과 웬지 모를 짜증이 가득 찼다. 주위의 환경이 특별히 변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마음속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그때는 내 마음상태가 왜 그런지도 모른 채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고 자주 화가 나서 스스로 불안해지기도 했다. 답답한 마음이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몇 달이 흐른 후 우연히 친구와 함께 어떤 법회에 참가했고, 그 인연으로 불교공부를 시작하게 됐다.

그렇게 공부를 시작해 처음엔 아주 치열하게 공부에 매진했다. 처음 3년 동안은 가정법회를 열었는데, 신도들의 집에 들어가면서 법회를 열었다. 이때 배운 공부 방법은 경전을 읽고 마음 비우는 것이었는데, 그게 결국 내 마음을 놓치지 않고 들여다보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늘 염불 정진을 끊이지 않고 했다. 사실 불교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세속적인 기준으로는 별 모자람 없이 어려운 것도 모르고 살았다. 남들이 볼 때는 전혀 어려운 게 없어 보이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집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일어났다.

처음에 겪은 일은 아주머니의 사업체가 부도가 나 남편이 보충 서준 것과 본인 명의로 대출 받은 돈 등 수천만 원의 빚을 안게 된 것이다. 남편 월급이 차입을 당하네 마네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결국 월급 차입은 당하지 않았지만, 생활하면서 그 이

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다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그러면서 마음이 아주 궁핍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전까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무얼 하나 사려고 해도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하게 되니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 시작한 일이, 매달 절에 내린 보시금을 두 배로 올린 것이다. 내 궁핍한 마음을 닦으려고 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크게 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했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3년을 지내고 나니 빚을 다 갚을 수 있었고, 오히려 마음 그릇은 더욱 커진 것 같이 아주 여유로운 마음이 됐다.

그 다음해에는 셋째 아주머니가 간암 판정을 받는 일을 겪었다. 셋째 아주머니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간 상태였고 잠깐 귀국해 있는 동안 입원을 하게 돼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문안 차 병원에 들렀다가 저희 집이 따뜻하니 와서 계셔도 된다고 했더니 1주일 뒤에 집을 싸서 내려 왔다.

가정법회·염불 정진 하며 마음 추스려

생활꿈에도 보시 두배하며 열심히 공부

3년간 빚갚고 나니 남편에 '병마' 찾아와

기 때문이다. 사실 돈을 낼 때는 '이 돈이 이 만큼 큰 돈인데 이걸 내고 무리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올라 왔지만 '내 마음 연습이다' 하고 마음을 다지면서 보시금을 냈다. 그러다 보니 낼 때는 굉장한 큰돈 같은데 그걸 떼서 내도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다.

문득문득 "나는 알뜰하고 착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큰소리로 경을 읽고 마음을 들여다보길 반복했다. 독송을 하다 보니 이 일은 내가 가야 할 어떤 업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일로 다행까지 나면 사람 잃고 병 얻는 것 밖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한 달을 모쳤고, 그러다 우리 집에서 돌아가셨다. 직접 입종을 봐 드리고 장례를 모셔드렸다. 당시는 젊을 때라 힘도 세고 몸과 마음이 굉장히 건강한 편이라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짚었다.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힘든 일인 줄도 모르고 큰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몇 년 동안 빚을 갚고 셋째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게다가 큰 아이가 대수술을 받는 일까지 겪으며 정신없이 세월이 흘렀다. 이제 힘든 일은 모두 끝난 것만 같았다.

그러던 93년 어느 봄날, 남편이 병원에 같이 가자면 낮에 집에 왔다. 처음엔 별 것 아닌 줄 알았는데, 밤에 더 많이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로 갔다가 충남대학병원에 입



그림 · 문병성

원까지 했다. 그곳에서 남편은 셋째 아주머니와 마찬가지로 간암 판정을 받았다. 암이라고는 해도 겉으로는 환자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 평상시에도 별로 아픈 적이 없는 사람이라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당시에는 남편이 그렇게 빨리 세상을 뜰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담당 의사가 수술도 잘 됐다고 하고 퇴원 후에도 건강하게 살았는데 1년 좀 지나고 나니 얼굴색도 안 좋고 매사에 힘들어 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에게는 부처님이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 늘 공부할 때면 '이 불법(佛法)이면 금생 성불은 물론이고 그 공부로 인해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젊은 날의 치기였던 것도 같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지는 않았지만 나에게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더 흐르고 나자 의사가 부르더니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 울면서 법사님께 전화했다. 법사님께서는 "나만 믿어

라, 내가 기도하면 나올 수 있다. 부처님께 서 기적을 일으켜 살려 주실거다"라고 애기하실 줄 알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거다"라고만 말씀하셨다. 법사님께서는 "지금껏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그것도 몰랐느냐"고 하시면서 "상대방이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을 공부거리 삼아서 공부를 해봐라"고 당부하셨다.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 밖에 없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다. 마음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서 기도했다. 그 기도 덕분에인지 남편은 많이 고��스러워하지 않고 입원한 지 3주 만에 몸을 벗었다.

그렇게 한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 이제 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공부의 본질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기도가 어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담겨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틀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클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전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클리닉.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제51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엄청난 청건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 세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일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결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물론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날 짜:** 9월 24일(토) 저녁 9시 ~ 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전)
- **준비물:** 동참비 2만원
기도포(쿠수건), 수건 2개(담뱃통 용도), 두꺼운 면양모 2켤레, 면티 2매, 수련복(하의) 2매, 간단한 간식, 물병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 **장 소:** 분당 이매역 하안마을선원 대법당
- **찾아오시는 길**
● 전철: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로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북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법왕정사서울군자법당**
수행 중심 교 육 도 램

오시는 길: 5,7호선 군자 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방향으로 100M 이망스 카구 4층
문의 전화: 02)456-4994, 0035(백스경음), http://cafe.daum.net/sorisan

과일의 왕 두리안

스님들과 불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이게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아하게 되었습니다.

● 두개 6.5KG이상 **55,000 원**
한박스 13KG이상 **100,000 원**

Sale!

후식으로 보이산차, 장미차, 국화차 중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나무 묘법 연화경

시대에 맞는 생활불교의 지평을 여는 신 종단으로서 중도(스님) 및 법사, 전국 각 지역 중무원을 모집합니다.

년령, 학력, 출가이력, 경력은 필요치 않습니다.

법사 및 행자는 연령과 남녀 관계없이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여 수계함

묘법 연화경으로 각종 예불 및 의식을 무보시로 가르쳐 드립니다.

대한불교 묘법 연화종 중무원장 만오 연해광 합장

- 총무원: 창원시 중앙동 70-9번지
- 문 의: 055)263-4984, 018-432-4984

생활철학 강자 학인 모집 (책임지도)

명리, 성명, 관상, 육효, 풍수지리

- 강사: 만오스님(현 창원 전문대학 강의중)
- 대상: 스님
- 모집인원: 20명
- 도시: 50만원
- 접수: 9월 30일까지
- 강의: 10월 1일부터 - 10월 30일까지 (부족한 스님은 날짜와 관계없이 알려주세요)
- 문의: 055)263-4984, 018-432-4984

정통 철학의 맥을 이어온 학문, 우주의 근본원리를 탐구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알게되면 부처님의 12인연법은 물론 운명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님은 신도들의 상담에 필수적인 것이고, 우주의 이치로 실로 정연하여 한치의 착오가 없는 만고 불변의 학문이요, 대도(大道)라 할 수 있다. 즉 철학은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니다.

창원시 중앙동 70-9번지 성한빌딩 4층 묘법정사